

도로 개선사업 2년째 방치 '최악의 교차로'

유촌동 계수사거리 '5년연속 교통사고 다발' 이유 있었다

하수관거 공사 이유 개선사업 지연... 시민 안전 위협 쌍촌동 동명동사거리 시설 개선후 사고 급감 '대조'

광주시와 도로교통공단 등이 주요 교통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시설 개선을 미루면서 지역민들을 사고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년 연속 '교통사고 다발지'로 꼽힌 장소에 대한 도로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방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부족 문제도 매년 이어지면서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도 높다.

27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0년~2014년 광주 교통사고 다발지역' 중 ▲서구 유촌동 계수사거리 ▲서구 유촌동 벚들주공아파트 사거리 ▲서구 광천동 기아자동차사거리 ▲서구 광천동 광천사거리 등 4곳은 5년 연속 10위권에 포함돼 있다. 계수사거리의 경우 지난해만 5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전국 교통사고 1위 지역이라는 '오명'을 썼다.

교통량도 가장 많은데다, 사고 발생도 잦아 '최악의 교차로'로 5년 간 지적됐지만 사고를 줄이기 위한 시설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구간 내 하수관거 공사가 진행되면서 '시설 개선 효과가 없어 공사 이후로 미뤄왔다'는 게 도로교통공단 등의 입장이지만 매년 수십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하수관거 공사를 이유로 시민들의 안전을 나몰라라 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광주시도 이같은 점을 들어 지난 2013년 '구조 개선 대상지'로 포함됐음에도 해당 지역들에 대한 개선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광주시와 도로교통공단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데도, 충분한 고민 없이 '하수관거 공사'만을 내세워 시설 개선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당장, 광주시 서구 쌍촌동 동명동사거리의 경우 2010년~2012년 각각 교통사고가 33건, 25건 발생한 뒤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됐고 8650만원의 들어 시설 개선을 벌인 결과, 이듬해 사고 건수가 9건으로 급감했다. 해당 구간 진입차량 100만대당 사

고율도 0.43건→0.27건으로 37.2%나 감소하는 등 효과를 봤다.

또 서구 농성공원사거리도 5년간 3차례 10위권에 포함됐었다. 하지만 2011년 개선사업 이후 하루 통행량이 8만9756→9만5608대로 5852대(6.52%)가 더 늘었음에도, 통행차량 100만대당 사고율은 0.95건→0.34로 무려 64.2%나 줄어들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교통사고 10위권을 유지했던 북구정사거리도 2013년 육교철거 및 도로재포장·차선조정 등 개선사업을 한 뒤 지난해 순위권에서 제외되는 등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부족한 예산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해 구조 개선 대상지로

선정했던 ▲광산구 송정동 열린병원~도산동 파랑새 음식점 구간 ▲말바우시장 사거리 등에 대한 공사를 '예산 부족'을 이유로 포기했다.

올해도 시설 개선이 필요한 ▲풍암IC사거리 ▲신우아파트 사거리 ▲양림교사거리 ▲효덕지하차도 입구 등 4곳을 예산 문제를 내세워 사업을 보류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3개 구간 사업비로 10억을 요청했으나 정부로부터 5억9600만 원만 지원받았고 올해는 3억4000만원으로 줄어 개선사업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해마다 국비 지원이 줄어드는 탓에 사업 대상지조차 사업을 미루거나 보류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27일 지난해 하루 교통량 24만9000대로 광주에서 통행량이 가장 많은 교차로이자 교통사고 다발구역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얻게된 광주시 서구 유촌동 계수사거리 모습. /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미래산단 관련 임성훈 전 나주시장 항소심 집유 감형

임성훈 전 나주시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7일 제 3차 뇌물수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시장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임 전 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전 시장은 미래산단 사업의 핵심 관계자인 시행사 대표에게 여러 차례 요구하여 수십억 원의 자금을 용이하게 융통해 사용하는 무형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차단체제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집행을 해야 하는 책임을 망각,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유형외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형태의 뇌물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볍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외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미래산단) 조성 업무를 주도한 나주시 전 투자유치팀 실무담당자 김모(52)씨에게는 징역 12월에 벌금 7억원, 추징금 2억8800여만원, 김씨의 상급자 위모(61)씨에게는 징역 6년, 벌금 1억5000만원과 추징금 1억원, 기업 이전 보조금 사기를 주도한 전남도 전 투자유치 자문관 최모(45)씨에게는 징역 6년에 추징금 8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미래산단 시행사 대표 이모(43)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전 나주시 부시장 홍모(63)씨는 무죄를 선고했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대법 "배인수 서창농협 조합장 심리·판단 다시 하라"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내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서창농협 조합장 배인수(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배씨는 서창농협 이사 선거를 4일 앞둔 지난해 1월 24일 이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집을 찾아가 "이번에 쉬고 다음에 한번 하면 어떻겠냐"며 현금(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항소심도 1심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사뭇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배씨는 '점심값으로 10만원을 줬다'고, 이사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 A씨는 '후보 사퇴 목적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상황에서 검사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지 않고 배씨를 기소했다"면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A씨 진술의 '후보 사퇴 목적'과 배씨 진술의 '10만원 제공'을 단순 조합한 공소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보자를 사퇴하게 한다면 10만원에 불과한 돈을 제공했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심리 필요성을 설명했다.

배씨는 16년째 서창농협을 이끌고 있는 광주지역 최다선(5선) 조합장이다. 배씨는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변호사로 선임한 바 있다. / 김지을기자 dok2000@

전국 명성 광주 다이어트 전문병원 알고보니 우울증 치료제를 특효약으로 처방

광주지검, 의사 등 10명 적발

다이어트 전문 병원으로 전국적 명성을 떨친 광주 한 병원이 우울증 치료제 등을 다이어트 특효약으로 처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병원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000 약 구합니다'는 게시물이 나돌 정도로 입소문이 났다.

광주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조기룡)는 27일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광주 H 병원 의사 A(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다이어트 약을 판 약사 2명과 배달을 대행한 업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H병원 원장, 다른 약사 2명과 대행업자 2명 등 5명을 약사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1304차례에 걸쳐 환자 진료도 없이 다이어트 약을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사,

대행업자 등은 A씨의 처방에 따라 약을 짓고 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약성 고혈압·우울증·간질 등에 쓰는 약과 일부 마약류에 해당하는 약 몇 알을 하루 세 번 식전에 복용하도록 했다. 비만치료를 체중감량을 목적으로 허가된 것이 아니라 복용 시 체중감소가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점을 노려 처방했으며 오남용 시에는 중독, 정신질환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병원 주변 약국 5곳에서 대리처방을 하고 하루에 수백건의 대리처방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병원 등의 이익은 막대했을 것이라고 검찰은 추정했다. 검찰은 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건·기소사실을 통보해 행정제재와 요양급여비 환수 조치에 나서는 한편, 세무당국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김지을기자 dok2000@

정율성 선생 출생지 확인 소송 각하

"광주시 상대 소송은 부적법"

광주지법 민사 14부(부장판사 조정웅)는 27일 중국 혁명음악의 대부 정율성(1914~1976) 선생의 외동딸과 외손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출생지 확인 소송에 대해 각하했다.

재판부는 "정율성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광주 남구정(양림동), 광주 동구청(불로동), 사단법인 정율성 선생 기념사업회"라며 "기념사업 주체도 아닌 광주시를 상대로 출생지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추진 주체들에게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출생지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정율성 선생은 '오월의 노래'(1936년), '팔로군 행진곡'(중국 인민군 행진곡, 1939년) 등을 작곡한 음악가로 2009년 중국 건국 60주년 행사에서 건국 영웅 100인에 선정됐다. 외동딸 등은 부친의 자필이력서, 회고록 등 자료를 토대로 부친의 출생지 양림동이라는 사실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 김지을기자 dok2000@

아내 흥기로 찢은 뒤

50대 남성 투신 자살

광주에서 50대 남성이 아내를 흥기로 찢은 뒤 투신자살했다.

27일 오후 6시30분께 광주시 북구 A 아파트에서 아내 강모(51)씨가 가슴과 양팔을 흥기에 찢려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강씨의 여동생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강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이 아파트 1층 화단에선 강씨의 남편 김모(54)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강씨의 여동생은 경찰에서 "형부와 언니가 만나기로 해서 같이 갔다가 김씨가 이상해 경찰에 신고하러 나간 사이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와 아내는 가정 문제로 별거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손자같은 20대 택배기사 반말에 울컥... 우산 휘두른 70대



○...자신에게 반말을 내뱉은 20대 택배기사의 얼굴을 향해 우산을 휘두른 70대 노인이 경찰서행.

○...27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김모(73)씨는 지난 25일 오후 6시20분께 광주시 남구 진월동 S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택배기사인 임모(28)씨가 '너는 뭐냐'고 말하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임씨

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

○...이날 김씨는 주차문제로 다른 입주민과 말다툼을 벌이는 임씨에게 '자네가 잘못한 것 같으니 사과하고 가소'라며 훈계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김씨는 경찰에서 "손자 같은 친구가 대담 반말을 하자 화가 났다"고 진술.

/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펜션·전원주택단지

캠핑장·미술관·체험학교·식당
야외결혼식장·연수원·요양원·찻집

최고장소!

투자 가치! 확신합니다.

주인직매
H. 010-3605-5000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외 1필지(구, 송학랜드)
- 토 9168평, 건 882평, 계획관리지역,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 담양댐 하루 바로 옆, 건너편 전원주택단지, 담양리조트/금성펜션단지 1분거리
- 죽녹원, 금성산성/추월산/강천산/대나무 박물관/메타세쿼이아길 근접
- 현재 박물관, 펜션, 식당, 별장으로 운영 중
- 차후 형질변경으로 공시지가 10억정도 상승 가능
도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관광특구로 모든 업종 개발 가능
귀농/귀촌 전남지역 1순위 지역
- 매매 - 감평가 28억 / 시세 30억 정도
매매 22억(법인체 인수 가능, 이전비 없음)

현,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연 2.1%)
1년후 20억이상 대출 가능

전원주택단지, 담양댐, 한마음연수원, 금성펜션단지, 담양리조트